

Coxiella burnetii감염과 가와사끼병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종욱 · 이해용 · 이원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서 론

가와사끼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호발하는 급성 열성 발진성 소아질환으로 1967년 일본의 가와사끼¹⁾에 의해 처음 보고된 후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리학적으로는 전신성 혈관염의 소견을 보이며²⁾ 5일 이상의 지속되는 발열, 손과 발의 흥반성 부종 등의 사지 말단의 변화, 피부의 부정형 발진, 양측 안구 결막의 비 삼출성 충혈, 입술 및 구강 점막의 발적과 비화농성 경부림프절종창 등의 특징적인 임상증상 및 정후에 의하여 진단된다. 현재까지 그 원인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그동안 원인에 관한 여러가지 학설 즉, 감염설³⁾, 면역관련설⁴⁾ 및 HLA 항원 관련설⁵⁾이 있으나, 병의 발생이 계절적 분포 및 지역적 유행성을 보이며, 형제간에 발생률이 높고 다른 감염성 질환과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감염에 의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⁶⁾. 특히 *C. burnetii* 감염의 경우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임상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여러 가지 질환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가와사끼병과 *C. burnetii* 감염과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1월부터 1996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 내원한 환자중 Japan Kawasaki Disease Research Council에서 규정한

가와사끼병 진단기준에 합당한 환아 15명을 제 1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열이 있어 내원하였던 환아 15명을 제 2군으로 하였고 무증상의 20명의 소아를 대조군으로 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말초혈액을 무균상태로 채취한 후 헤파린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림프구를 배양하여 *C. burnetii* 감염을 확진하였다.

환자의 말초혈액 림프구를 Ficoll-Hypaque(Pharmacia, U.S.A)로 분리사용하였고, 혈장은 -70°C에 냉동보관하였다. 말초혈액 림프구는 Essential Media(MEM, Hazleton Biologics, U.S.A)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FBS, CSL, Australia) 및 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100U & 100mg/ml)을 첨가한 plastic culture flasks(Coster, U.S.A)에 이식하였다. 배양조건은 37°C의 온도와 습도 및 CO₂가 조절된 incubator를 이용하였다. 배양세포의 박테리아나 클라미디아에 의한 감염은 thioglycolate broth 와 McCoy cell assay로 검정하였다. 세포의 형태는 inverted phase contrast microscopy와 laser scanning microscopy로 검정 판정하였다.

면역조직화학표식자의 검사방법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TRAP) isoenzyme을 Katayama 및 Yam의 방법으로 하였고 표면면역글로불린(surface immunoglobulin) 및 기타 cell marker는 immunofluorescent microscopic assay(IF)로 수행하였다. 즉 세포를 Ca⁺⁺ & Mg⁺⁺ free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에 넣고 표면면역글로불린, CD-3, CD-4, CD-8 각각에 대한 단세포 항체(monoclonal antibody, 20ml ea; Becton Dickinson, U.S.A)로 다시 4°C에서 처리하였다.

세포내 *C. burnetii*는 WHO Reference Labora-

tory에서 분양받은 rabbit and human anti-*C. burnetii* antisera를 이용하는 간접면역형광항체 검사법(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IFA)으로 확인하였다.

가와사끼병 원인인자로서의 *C. burnetii* 감염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대상환아 50명중 19명에서 간접면역형광항체 검사법으로 세포내 *C. burnetii* 감염을 확인하였다 (Fig. 1). 제 1군 15명 환아중 14명에서 *C. burnetii* 감염이 확인되어 양성률이 93%였고, 제 2군 15명 환아중 3명에서 *C. burnetii* 감염이 확인되어 양성률이 20%였으며, 대조군 20명에서 2명의 감염이 확인되어 10%의 양성률을 보였다. 가와사끼병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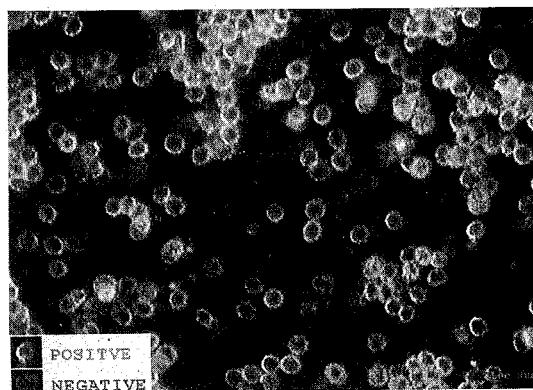


Fig. 1. Immunofluorescent micrography of cells specifically stained with *C. burnetii*-specific rabbit antisera. Cell with cytoplasmic positive granules reacted with anti-serum (160X).

Table 1. *Coxiella Burnetii* Infection Among 3 Groups

	Positivity	양성율(%)
Group 1 (n=15)	14*	94
Group 2 (n=15)	3*	20
Group 3 (n=20)	2*	10

* p < 0.05

아에서 *C. burnetii* 감염의 양성률이 매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P < 0.05).

가와사끼병 환아에서 그 원인인자로서 *C. burnetii* 감염을 확인하는 것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3.3%와 80.0%로 진단적 가치가 있었다.

고 칠

가와사끼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호발하는 소아 급성 열성 질환으로 1967년 일본의 가와사끼¹⁾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이 병은 아직 확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고, 5일 이상의 지속되는 발열, 손과 발의 흥반성 부종 등의 사지 말단의 변화, 피부의 부정형 발진, 양측 안구 결막의 비 삼출성 충혈, 입술 및 구강 점막의 발적과 비화농성 경부림프절증창 등의 특징적인 임상증상 및 정후에 의하여 진단된다.

가와사끼병의 주된 병리소견은 관상동맥을 잘 침범하는 전신성혈관염²⁾으로서 심장 질환의 빈도는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³⁾, 관상동맥질환의 발생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다양하며⁴⁾, Hiraishi⁵⁾ 등은 가와사끼병 환아의 20.3%, Moren⁶⁾ 등은 15%, 이⁷⁾ 등은 36.8%에서 심전도 및 심초음파 등에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하였다. 관상동맥류의 확진은 관상동맥 조영술로 가능하지만⁸⁾ 관상동맥의 파열 및 사망의 위험 등으로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심전도 및 심초음파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추천되고 있으며 Kato⁹⁾ 등은 15%에서, Chung¹⁰⁾ 등은 18.4%에서 관상동맥류가 각각 발생한다고 하나, 저자들의 경험으로는 10%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와사끼병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관상동맥류의 파열로 인한것도 있지만 관상동맥류의 혈전가능성과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고난 뒤 관상동맥의 퇴행과 함께 오히려 협착이 있어 심근경색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상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C-reactive protein(CRP), 백혈구수, 혈색소치, 혈소판수, SGOT, 혈청알부민치, IgG, 발열기간 등을 들 수 있으나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나이가 1세 미

만, CRP 양성도, $30 \times 10^4/\mu\text{L}$ 이상의 혈소판수를 들 수 있다¹³⁾.

가와사끼병의 원인은 현재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원인에 관한 여러가지 학설 즉, 감염설³⁾, 면역관련설⁴⁾ 및 HLA 항원 관련설⁵⁾이 있으나, 병의 발생이 계절적 분포 및 지역적 유행성을 보이며, 형제간에 발생율이 높고 다른 감염성 질환과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감염에 의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⁶⁾

Kato¹⁴⁾ 등은 *Propionibacterium acnes*와 가와사끼병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Propionibacterium acnes*의 변이 군주가 3~4주간의 혐기성 배양으로 림프절 생검 검체로 부터 동정되었다. 가와사끼병 초기환자 23명중 5명, 병의 8일 경과후 15명중 한명의 혈액에서 배양되었다.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노인 대조군에서는 이 혐기성 군이 동정되지 않았으나, 가와사끼병 환자 6명의 집먼지 진드기에서는 동정이 되었다.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이 군주에 대한 한랭응집소가 의미있게 높았으며, *Propionibacterium acnes*의 항원 성분이 가와사끼병 환자의 순환 면역 복합체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Kato¹⁴⁾ 등은 *Propionibacterium acnes*가 가와사끼병의 원인 요소이며, 집먼지 진드기가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Jordan¹⁵⁾ 등은 가와사끼병의 발병기전에 집먼지 진드기항원이 관여한다는 일본 연구자^{16, 17)}들의 보고를 입증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아마도 역학적 혹은 유전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¹⁵⁾

Leung¹⁸⁾ 등은 가와사끼병이 독소 쇼크 증후군 독소-1(TSST-1)의 변종인 포도상 구균 독소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측하였다. 비록, 가와사끼병 환자 대부분에서 한 종류의 그런 군주가 동정되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은 이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Shulman 등은 가와사끼병 환자의 말초혈액 단핵구 배양 상청에서 retrovirus-specific reverse transcriptase 활성도를 입증하였다.^{19, 20)} 가와사끼병에서 retrovirus의 연관성은 T림프구의 변화⁴⁾와 가와사끼병의 혈관염에 대식세포가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Okamoto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없었고, retrovirus가 연관된 아

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HTLV-I 혹은 HTLV-II에 반응하는 가와사끼병 환자의 혈청을 찾을 수 없었다²¹⁾.

Streptococci, spirochetes (leptospires 및 *Borrelia burgdorferi*), Mycoplasmas, *Toxoplasma gondii*, human parvovirus 및 herpesviruses (Epstein-Barr virus, cytomegalovirus, human herpesvirus, varicella-zoster virus와 herpes simplex virus) 감염과 가와사끼병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여러보고가 있었으나 확실한 혈청학적인 증거는 없었다²²⁾.

Coxiella brunetii(C. burnetii)가 소아에서 가와사끼병과 연관이 있다는 여러보고가 있다²²⁾. Hamashima 등은 가와사끼병 환자 8명의 피부 및 림프절에서 전자현미경상 리케치아 유사 물체(rickettsia-like bodies)를 발견하였다²³⁾. 이 물체는 거식세포내에 있었으며 혈관강내에 모여있었다. 이것은 리케치아군과 유사한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유롭게 혹은 숙주 세포질내에서 발견되었고 세포벽과 원형질막에 의해 경계지워졌다. 이같은 소견은 전에 보고된 여러종류의 리케치아와 *R. orientalis*의 전자현미경 소견에 합당한 것이었다²³⁾.

Carter²⁴⁾ 등은 심한 비장염이 동반된 가와사끼병 환자의 비장세포에서 전자현미경상 리케치아 유사 물체를 발견하였고, 이것이 호주에서 보고된 최초의 가와사끼병 증례였다.

Edlinger²⁵⁾ 등은 고양이의 리케치아인 *Ehrlichia canis*에 대한 항체를 두명의 가와사끼병 환아에서 발견하였다. *Ehrlichia canis*에 대한 간접 면역 형광법상 전강한 소아는 음성이었으나 가와사끼병 환자의 혈청은 두명 모두 양성이었다.

Swaby²⁶⁾ 등은 9개월된 가와사끼병 환아에서 Q열에 대한 항체반응을 보고하였고, Weir 등은 성인 가와사끼병 환아에서 Q열에 대한 항체반응을 보고하였으나 가와사끼병 환자들에서 Q열에 대한 항체검사가 음성임을 보고한 저자들도 있었다^{25, 27)}.

본 연구대상 환아군의 *C. burnetii*에 대한 간접 면역형광항체 검사법상 가와사끼병 환아 (제1군) 15명중 14명(93%)에서 *C. burnetii*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고, 2군 환아 15명중 3명(20%), 대조군에서는 2명(10%)에서 양성을 보여 가와사끼병을 가진

환아에서 *C. burnetii* 감염의 양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가와사끼병 환아에서 그 원인인자로서 *C. burnetii* 감염을 확인하는 것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3.3%와 80.0%로 진단적 가치가 있었다.

결 론

*C. burnetii*가 가와사끼병의 원인 인자중의 하나로 사료되며, 향후 *C. burnetii*가 가와사끼병의 원인 균주인지 혹은 일시적 말초혈액 변화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Kawasaki T: acute febrile mucocutaneous lymphnode syndrome with lymphoid involvement with specific desquamation of the fingers and toes in children: Clinical observations of 50 cases (in Japanese). *Jpn J Allergy* 16:178-222, 1967
- 2) Fugiwara G, Hamashima Y: Pathology of the heart in Kawasaki disease. *Pediatrics* 61:100-107, 1978
- 3) Kikuda H, Nizuno F, Osato H: Kawasaki Disease and Unusual Primary Infection with EB Virus. *Pediatrics* 73:413-414, 1984
- 4) Leung DYM, Chu ET, Wood N, Grady S, Meade R, Geha RS: Immunoregulatory T cell abnormalities in Mucocutaneous Lymph Node Syndrome. *J Immunol* 130:2002-2004, 1983
- 5) Krencky AM, Berenberg W, Shanley K, Yunis EJ: HLA Antigens in Mucocutaneous Lymph Node Syndrome in New England. *Pediatrics* 67:741, 1981
- 6) Nakamura Y, Fujita Y, Nagai M: Epidemiology of Kawasaki disease in Japan. In Proceedings of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f Kawasaki Syndrome. 23-26, 1988
- 7) Morens KM, Anderson LJ, Hurwitz ES: National surveillance of Kawasaki disease, *Pediatrics* 65:21-25, 1980
- 8) Daniels SR, Specker S, Capannari TE, Schwartz DC, Burke MJ, Kaplan A: Correlates of coronary artery aneurysm formation in patients with Kawasaki disease. *Am J Dis Child* 141:205-207, 1987
- 9) Hiraishi S, Yashiro K, Oguchi K, Nakazawa K: Clinical course of cardiovascular involvement in the mucocutaneous lymphnode syndrome: Relation between clinical signs of carditis and development of coronary arterial aneurysm. *Am J Cardiol* 47:323-328, 1981
- 10) 이두봉, 이경수, 이병철, 이익준: 금성 열성 피부점막 임파절 증후군의 역학 및 임상적 연구. *소아과* 25:977-993, 1982
- 11) Kato H, Ichinosa E, Yoshioka F, Suzuki K, Rikitake N: Fate of coronary aneurysm in Kawasaki disease: Serial coronary angiography and long-term follow-up study. *Am J Cardiol* 49:1758-1766, 1982
- 12) Chung KJ, Brandt L, Kreicberg MB: Cardiac and coronary arterial involvement in infants and children from New England with mucocutaneous lymphnode syndrome (Kawasaki disease): Angiographic echocardiographic correlations. *Am J Cardiol* 50:136-142, 1982
- 13) Bierman FZ, Gersony WM: Current literature and clinical issues: Kawasaki disease: Clinical perspective. *J Pediatr* 111:789-793, 1987
- 14) Kato H, Inoue O, Koga Y, Fujimoto T, Kondo M, Yamamoto S, Tominaga K: Variant strain of *Propionibacterium acnes*: A clue to the aetiology of Kawasaki disease. *Lancet* 17:1383-1387, 1983
- 15) Jordan SC, Plattts-Mills TAE, Sakai R, Mason W, Takahashi M, Rawle F, Wilkins S: Lack of evidence for mite-antigen-mediated pathogenesis in Kawasaki disease. *Lancet* 23:931, 1983
- 16) Furusho K, Ohba T, Sorda T: Possible role for mite antigen in Kawasaki disease. *Lancet* 2:194-195, 1981

- 17) Fumimoto T, Kato H, Ichiose E, Sasaguri Y: *Immune complex and mite antigen in Kawasaki disease.* *Lancet* 2:980-981, 1982
- 18) Leung DYM, Meissner HC, Fulton DR: *Toxic shock syndrome toxin-secreting Staphylococcus aureus in Kawasaki syndrome.* *Lancet* 342:1385, 1993
- 19) Shulman ST, Rowley AH: *Does Kawasaki disease have retroviral etiology?* *Lancet* 2:545-546, 1986
- 20) Burnes JC, Geha RS, Schneeberger E: *Polymerase activity in lymphocyte culture supernatants from patients with Kawasaki disease.* *Nature* 323:814-816, 1986
- 21) Okamoto T, Kuwabara H, Shimotohno K, Cugimura T, Yanase Y, Kawasaki T: *Lack of evidence of Retroviral involvement in Kawasaki disease.* *Pediatrics* 81:599, 1988
- 22) Rauch AM: *Kawasaki syndrome: Review of new epidemiologic and laboratory developments.* *Pediatr Infect Dis J* 6:1016-1021, 1987
- 23) Hamashima Y, Kishi K, Tasaka K: *rickettsia-like bodies in infantile acute febrile mucocutaneous lymph-node syndrome.* *Lancet* 7:42, 1973
- 24) Carter RF, Haynes ME, Morton J: *Rickettsia-like bodies and splenitis in Kawasaki disease.* *Lancet* 4:1254-1255, 1976
- 25) Edlinger E, Benichou JJ, Labrune B: *Positive Ehrlichia canis serology in Kawasaki disease.* *Lancet* 24:1146-1147, 1980
- 26) Swaby ED, Fisher-Hoch S, Lambert HP, Stern H: *Is Kawasaki disease a variant of Q fever?* *Lancet* 19:146, 1980
- 27) Lambert HP, Fisher-Hoch SP, Grover SA: *Kawasaki disease and Coxiella burnetii.* *Lancet* 12:844, 1985

= Abstract =

The Association of Kawasaki Disease and Coxiella burnetii

Jong Wook Kim, M.D., Hae Yong Lee, M.D. and Won Young Lee, Sc.D.*

Department of Pediatrics,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Department of Microbi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 Coxiella burnetii is a well-known causative agent of granulomatous inflammation and an inducer of morphological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human B lymphocyte in vitro. Coxiella burnetii manifests with several clinical symptoms depending upon the organs that are involved. We therefore undertook to clarify the association of Kawasaki disease and Coxiella burnetii.

Subjects and Methods : The patient's sera were tested for antibodies specific for Coxiella burnetii, using 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chnique(IFAT). We compared Coxiella burnetii infection with 3 groups of patients, group 1 (Kawasaki disease), group 2 (other febrile disease) and group 3 (control group).

Results :

- 1) In children with Kawasaki disease (group 1), 93% of the patient tested positive for Coxiella burnetii.
- 2) In group 2 children, 20% of the patient tested positive for Coxiella burnetii.
- 3) In group 3 children, 10% of the patient tested positive for Coxiella burnetii
- 4) There were significant higher positive rate for Coxiella burnetii in Kawasaki disease than group 2 and group 3 ($p < 0.05$).

Conclusions : We concluded that our cases of Kawasaki disease were associated with Coxiella burnetii infection.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understand the precise role of Coxiella infection in Kawasaki disease.

Key Words : Kawasaki disease, Coxiella burnetii